

보웬의 가족치료이론에 근거한 신학대학원생의 가족배경 분석 및 상담

김 영 근*

국문초록

본 연구는 보웬의 가족치료이론과 그의 이론을 기독교적 입장에서 조명했다. 보웬의 가족치료이론의 주요개념은 자기분화, 삼각관계, 핵가족체계, 가족투사과정, 다세대전수과정, 형제지위, 정서적 단절, 사회적 정서과정 등이다. 본 연구는 신학대학원생 33명이 작성한 가계도와 가정의 역사를 근거로 하여 이들의 가족배경을 분석하고 보웬의 이론 중 자기분화의 측면과 삼각관계의 측면에서 이들의 가정의 정서체계를 분석했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신학대학원생 상담을 시도했는데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대원생들이 가계도의 작성과 분석을 통해서 얻었던 통찰은 자가상담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둘째, 이들이 가계도 작성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소그룹에서 나누면서 자신의 가정을 객관화시키고 자신의 가정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받아들일게 되었다. 셋째, 가계도와 가정의 역사를 활용해서 얻은 정보는 신학대학원생의 개인상담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중심단어 : 가족치료이론, 자기분화, 삼각관계, 가계도, 신학대학원생

• 논문 투고일: 2011년 4월 15일
• 게재 확정일: 2011년 5월 17일
*장로회신학대학교

• 논문 수정일: 2011년 5월 6일

I. 여는 글

어른이 되었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미성숙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행하고, 자기중심주의에 매몰되어 있으며, 몰염치한 행동으로 공동체에 고통을 준다. 이들은 역기능적 가정의 출신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역기능적인 가정을 만들어간다. 이러한 역기능적인 가정은 교회안과 밖에 모두 있으며 그 수는 증가추세에 있다.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고 훈련받는 신학대학원학생들도 일정 부분 이러한 역기능 가정의 출신이기도 하며 그들이 앞으로 목양해야 할 가정들의 모습이다. Murray Bowen (1913-1990)은 이러한 역기능적인 가정을 만드는 원인을 가족구성원의 미분화 때문이라고 말한다. 원래 보웬의 가족치료이론은 기독교 신앙을 전제 한 것은 아니지만 가족의 이해와 치료를 위해 일반사회뿐만 아니라 기독교공동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심리학과 신학의 통합의 입장에서 보웬의 이론이 주는 여러 가지 중요한 통찰들을 신학적으로 잘 소화해 낸다면 목회상담자가 크리스천 가족들을 상담하고 돌봄에 있어서 유익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웬의 가족치료원리를 기독교신앙입장에서 이론적으로 재조명을 했다. 또한 임상적인 면에서 본 연구자가 담당한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결혼과 가족상담>수업에 참여한 33명의 학생들이 작성한 가계도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신학대학원생을 위한 목회상담을 시도했다. 이러한 상담은 그들 자신의 가족의 이해와 치료를 위한 것이며 동시에 그들의 목회사역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시도되었다. 첫째는 가계도와 가정의 역사 작성 과정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자기가족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자가상담의 과정이다. 둘째는 통찰의 내용을 소그룹에서 나눔으로 자기가정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발견하며 다른 가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폭을 넓히는 집단상담의 과정이다. 셋째는 목회상담자가 가계도와 가정의 역사를 분석해서 실시하는 개인상담의 과정이다.

II. 펴는 글

1. 가족치료의 역사적 발전

Freud에서 시작된 심리치료의 이론의 중심은 개인에서 대인관계로 그 다음에는 체계로 변화하여왔다. Freud가 정신분석을 통한 개인적 치료를 발전시킨 반면에 H. S. Sullivan은 개인의 성격발달에 미치는 대인관계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특히 모자관계의 상호작용은 중요한 병리의 소재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또한 Alfred Adler는 인간을 고립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타인을 향하여 움직이는 사회적 존재로 보았으며 일부 가족치료자들은 Adler의 그와 같은 사상에 기초하여 가족치료를 실천한다. 여기에서 더 발전하여 체계론적 이론은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개인의 증상의 원인을 가족 내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돌으로써 지금까지의 고전적 정신분석에 입각한 개별치료에 비해 더욱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보았다.¹⁾

I. Goldenberg와 H. Goldenberg는 현재 가족치료 운동은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초반에 각기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던 5가지 과학적 연구결과들이 그 토대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것은 첫째, 정신분석학적 치료가 그 치료범위를 전체 가족에게까지 확대시킨 것, 둘째, 일반체계이론(General System Theory), 셋째, 정신분열증의 발달에 가족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넷째, 결혼상담 및 아동지도, 그리고 다섯째, 집단치료와 환경치료 등의 새로운 임상적 기법에 대한 관심의 증가 등이다.²⁾ 가족치료의 이론과 실체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이론적인 가족체계 패러다임들은 그 시대의 과학적, 철학적사고와 관련하여 발전하였고 임상적 관심과 치료 기술들은 사회적 요구와 관련하여 발전하여왔다.

1) 문희경, “체계론적 가족치료 이론의 목회적 적용 가능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대학원, 1996), 7.

2) Irene Goldenberg & Herbert Goldenberg, *Family Therapy*, 장혁표 외 공역, 『가족치료』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5), 106-128.

1970년대에 들어와서 체계론적 가족치료가 현저하게 발달하였는데 그 당시 주된 이론은 Bateson이 발달시키고 후에 V. Satir 등이 더욱 발전시킨 “의사소통이론”과 Bowen의 이론이 있었다. 또한 이 주류를 벗어난 이론들이 두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Jay Haley의 “전략적 가족치료”와 S. Minuchin의 “구조적가족치료” 등이다.³⁾ 이런 이론들이 가족치료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현재까지 중심적인 가족치료 접근법이 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부부치료와 가족치료가 하나의 통합된 분야가 되어 가족치료전문직으로 정체감이 확고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족치료이론들이 1970년 후에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정신건강전문가들을 통해서 국내에 소개되었고 1979년 Satir의 번역서가 출간됨으로 ‘가족치료’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었다.⁴⁾ 가족치료이론은 목회현장에서도 고조되고 있다. 교회 안의 역기능가정들을 영적인 돌봄과 치유프로그램과 교육 등으로 성경적인 가정을 회복하려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과 연구소의 가정사역운동,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등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가족치료이론가 중에서 보웬의 가족치료이론의 의미를 분석하고 기독교신앙으로 재조명하고 목회상담에 활용하고자 한다. 최근에 보웬의 이론을 목회상담학적인 면에서 분석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 중에서 문희경의 “체계론적 가족치료 이론의 목회적 적용 가능성연구”는 보웬의 이론을 신학적인 입장에서 조명하고 목회적 차원에서 적용을 시도했다.⁵⁾ 박미라의 “보웬이론을 통해 본 야곱가족의 분석”은 보웬의 이론을 중심으로 야곱가족의 정서적 체계를 분석한 후에 이를 기독교상담에 활용했다.⁶⁾

3) 송성자, 『가족관계와 가족치료』 (서울: 홍익재, 1991), 107.

4) V. Satir, *Conjoint Family Therapy: A Guide to Therapy Technique*, 김만두 역, 『가족치료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사회복지연구소, 1977).

5) 문희경, “체계론적 가족치료 이론의 목회적 적용 가능성 연구”, 4-6.

6) 박미라, “보웬이론을 통해 본 야곱가족의 분석”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 2008), 10-13.

2. 보웬의 가족치료이론

1) 보웬의 이론 발달배경

보웬은 정신분석이론이 환자들이 경험하는 감정적 문제를 설명하는 기초는 되지만 정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진 환자의 치료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치료를 위해서 가족체계이론을 정립해 나간다.⁷⁾ 보웬은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환자 가족들과 많은 접촉을 하면서 환자와 그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시작하였다.

특히 보웬은 어머니-자녀의 모자 공생(symbiosis)이 정신분열 발달과 유지에 미치는 다세대적 영향에 특히 관심을 가졌다.⁸⁾ 그의 연구가설은 불안정한 자기를 가진 어머니가 태아를 자기 자신으로 혼합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출산 후에도 정서적으로 아기와 자신을 분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기 사이에 정서적으로 밀착되고 공생적인 감정이 많을수록 후에 정신분열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모자공생’ (Mother-child symbiosis)이라는 그의 첫 연구가설을 세운다.

정신역동적으로 정립된 접근방법과 체계적 접근방법간의 가교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보웬이 가족치료에 남긴 업적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론정립과 함께 치료기법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한 그는 치료는 인간행동의 정신의학적 직관이나 임상적 판단 위주를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⁹⁾ 보웬은 가족체계를 정서적 단위, 상호 관련된 관계망, 가족의 역사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체계로 보면서 직관적인 방법보다는 이론적인 방법을 중요시하면서 가족치료이론 발달에 기여한 정신과 의사였다.¹⁰⁾

7) 김정택 · 심혜숙, “Murray Bowen의 정신역동적 가족치료 모델,” 서강대학교생활상담연구소, 『인간이해』 (1992, 3): 294.

8) Goldenberg & Goldenberg, 『가족치료』, 203.

9) 김유숙,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1998), 138.

10) 송정아 · 최규련,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서울: 도서출판 하우, 1999), 83.

2) 주요개념

초기의 가족치료자들은 실용주의자들로서 통찰보다는 행동, 이론보다는 치료기법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가족치료자들 중에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었던 보웬은 항상 방법보다는 방향에, 기법보다는 이론에 좀 더 치중했다.¹¹⁾ 보웬의 이론은 불안의 정도와 자기분화의 통합(integration of the differentiation of self)정도라는 두 개의 주된 변인을 가지고 있다.

보웬은 개인주의적 접근과는 달리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았는데 한 개인을 가족이라는 전체 체계의 한 부분으로 보고 전체 가족체계를 중심으로 가족을 하나의 정서단위로 묶어서 보았다. 이 체계는 한 가구에 사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핵가족, 생사(生死)나 거주지와는 상관없는 확대가족으로 구성된다. 살아있거나 죽은 모든 가족원들, 또는 집에 같이 살거나 떨어져 사는 모든 가족원들은 현재 핵가족 정서체계 안에서 가족의 독특한 형태를 이룬다.

보웬의 가족치료이론은 8가지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다.¹²⁾ 그는 1966년에 자기분화, 삼각관계, 핵가족정서체계, 가족 투사과정, 다세대전수과정, 형제지위 등 핵가족과 확대가족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과정을 설명하는 여섯 가지 개념을 발표하였다. 그는 상호 관련있는 6가지 개념을 가지고 가족이 여러 대에 걸친 관계의 망에서 어떻게 개별성과 연합성의 상호작용을 형성하는가를 설명한다.¹³⁾ 1976년에는 가족과 사회에서 세대를 통해 일어나는 정서과정을 설명하는 정서적 단절, 사회적 정서과정 등 두 가지 개념을 추가했다.

(1) 자기분화(Differentiation of self)

자기분화는 보웬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보웬은 자기분화 개념에 두 개의 힘을 가정하는데, 이는 가족 안에서 연합하고자 하는 힘인 연합성과 서로 분리하고자 하는 힘인 개별성이다. 개별성은 생물학적으로 유기체를 자신의 의지, 즉 독립적이고 분리된 존재로 나아가게 하는 생명력에 뿌리를 둔다.

11) Goldenberg & Goldenberg, 『가족치료』, 53.

12) D. S. Becvar & R. J. Becvar, *Family Therapy: A Systemic Integration*, 정해정 · 이형실 역, 『가족치료: 체계론적 통합』, 156.

13) 김유숙, 『가족상담』, 412.

연합성은 유기체를 상대의 의지, 즉 의존적이고 분리되지 않는 개체로 나아가게 하는 생물학적 생명력에 뿌리를 둔다. 이상적인 것은 두 세력의 균형이다. 개별성과 연합성의 불균형은 ‘융합’ (fusion)이나 ‘미분화’ (undifferentiation)라고 부른다. 이 두 세력이 균형을 이룰 때 ‘분화’ (differentiation)라고 부른다.¹⁴⁾ 창세기의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야곱과 융합을 시도했지만 넷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유다라고 지으면서 야곱과 융합된 관계를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분화에 성공했다(창29:35).

(2) 삼각관계(Triangles)

삼각관계는 상호 대인적 체계의 요소이다. 정서체계의 기본요소로 가장 작고 안정된 관계단위다. 보웬은 자아의 통합정도와 자신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불안이나 정서적 긴장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면서 두 사람 관계체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상충된 욕구가 있을 때 균형을 유지하려고 시도하는데서 삼각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는 가족구조 내 두 사람간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가족의 다른 구성원을 두 사람의 상호작용체계로 끌어들이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것임을 발견했다. 삼각관계의 활동에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된 것은 불안이다. 불안이 증가하면 제 3자는 두 사람의 긴장에 관여하게 되어 삼각관계를 형성한다.¹⁵⁾ 창세기의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으로 불안한 관계에 있을 때 이를 해결하고자 두 아내를 끌어들이 삼각관계를 형성해서 극복하려고 했다(창31:1-16).

(3) 핵가족 정서체계(Nuclear family emotional system)

이 개념은 가족들이 감정적으로 서로 강한 결속력과 연결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족 내의 정서적 힘에 대한 것을 말한다. 핵가족 내에서 이런 정서기능의 유형들은 가족원들 사이에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나타난 산물로 원 가족에서 형성된 것을 다시 지금의 가족 내에서 반복하는 패턴으로

14) M. E. Kerr & M. Bowen, *Family Evaluation*, 남순현 · 전영주 · 황영훈 공역, 『보웬의 가족치료이론』 (서울: 학지사, 2005), 87-88.

15) Kerr & Bowen, 『보웬의 가족치료이론』, 168.

작용하는 정서적 압력들에 관한 것이다. 핵가족 정서과정은 한 세대의 가족 내에서 보이는 정서적 기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혼과 함께 시작되는데 가족의 분화정도가 낮을수록 증상을 일으키는 정서적 역기능 유형들이 활발히 작용한다. 어머니 리브가와 융합하면서 핵가족정서체계를 형성했던 분화수준이 낮은 야곱은 후에 동일하게 분화수준이 낮은 라헬과 결혼관계에서 이러한 핵가족정서체계를 반복한다(창30:1-8).

(4) 가족투사과정(Family projection process)

보웬은 미분화된 부모가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자녀 중에 가장 유아적인 자녀를 투사대상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이 현상을 가족투사과정이라고 했다. 가족투사과정의 강도는 두 가지 요인과 관련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부모의 미분화정도이고 다른 한 가지는 가족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불안의 수준이다. 정서적으로 단절된 부부는 심한 거리감을 느끼고 온통 자녀에게 관심을 쏟으며 그들에게 애착하게 된다. 이런 유형의 애착은 따뜻한 관심이 아니라 불안하고 속박적인 관심이다. 결국 자녀에 대한 과잉관여로 부부간의 거리감은 더욱 심화되고 자신의 불안 때문에 자녀에게 더욱 매달리고 자신의 불안을 자녀에게 돌림으로써 정서적 장애를 일으킨다. 가족투사과정은 어머니-아버지-자녀의 삼각관계 안에서 작용한다.¹⁶⁾

(5) 다세대 전수과정(Multigenerational transmission process)

다세대 전수과정에서는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한데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분화를 가진 상대를 배우자로 선택한다는 것과 부모의 낮은 분화수준이 부모의 정서유형에 민감한 특정자녀에게 전수된다는 가족투사 과정의 개념이다. 다세대전수과정은 정서체계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계승된 정서, 감정, 그리고 주관적으로 결정된 태도, 가치와 신념을 포함한다.¹⁷⁾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삭에 대한 편애, 이삭의 예서에 대한 편애와 야곱의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편

16) Michael P. Nichols & Richard Schwartz, *Family Therapy: Concepts and Methods*, 김영애 외 역, 『가족치료 개념과 방법』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5), 175.

17) Kerr & Bowen, 『보웬의 가족치료 이론』, 280-81.

애가 다세대 전수과정의 정서체계의 한 예이다.¹⁸⁾

(6) 형제지위(Sibling position profiles)

보웬은 가족 내 형제 순위를 기초로 자녀들의 성격이 일관되게 발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 개념에 의하면 자녀는 가족 내의 형제순위에 따라 어떠한 고정된 인성적 특성을 발달시킨다.¹⁹⁾ 보웬은 형제 순위별 성격특성을 가족의 투사과정이나 자아분화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했는데 이러한 기능은 가족 체계 내의 특정 개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개인은 형제순위 속에서 특정지위를 갖고 태어남에 따라 그것과 관련된 기능을 떠맡게 된다.²⁰⁾

(7) 정서적 단절(Emotional cut-off)

정서적 단절은 보웬이 1976년에 보충하게 된 개념으로 사람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세대 간의 미분화와 그와 관련된 정서적 긴장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서적 단절은 정서적 끈을 끊기 위한 극단적인 정서적 거리일 뿐, 사실은 부모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²¹⁾ 이런 정서적 단절의 형태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부모를 멀리하고 회피하며 대화거부나 부모가 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갖지 않는다.²²⁾

(8) 사회적 정서과정(Societal emotional process)

이 개념은 그의 이론적 공식에서 가장 덜 발전된 개념으로 가족에 대한 기본이론을 사회로 확대시킨 것이다. 모든 가족원들에게 하나의 배경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사회에서의 정서적 과정이 가족 내의 정서적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사회의 정서적 과정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불안이 확대되면 사회 집단 내 분화의 기능 수준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기술한다. 가족체계와 마찬가지로 사회도 불안이 증가하면 역기능을 나타내며 하위 집단끼리 융합되기 시작하여 폭력과 불신, 비행과 범죄율이

18) 이관직, 『목회자가 본 성경인물과 심리분석』 (서울: 한국목회상담연구소, 1999), 41.

19) Becvar & Becvar, 『가족치료: 체계론적 통합』, 156.

20) 김혜숙,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148.

21) Goldenberg & Goldenberg, 『가족치료』, 219.

22) 김혜숙,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148.

높아진다는 것이다. 보웬은 성차별주의, 계층과 인종에 대한 편견들이 불행한 사회의 정서적 과정의 예증이라고 인정하지만 가족평가와 치료에서 이를 크게 중요시하지는 않았다.²³⁾

3. 보웬의 가족치료이론의 기독교적 적용

보웬의 가족치료이론의 개념을 8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보웬의 이론을 기독교신앙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상담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문제를 포함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 속에서 바르게 이해되고 치유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신앙의 관점이다. 보웬의 가족치료 역시 이러한 관점으로 그 가치를 평가해보아야 한다.

보웬의 이론이 가족치료에 있어서 가족전체를 포함시켰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제도로서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독교신앙과 부합될 수 있다. 그러나 보웬의 이론은 개인을 단순히 가족과정들의 산출물로서만 보기 때문에 그 개인은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러한 체계이론의 접근법이 개인을 체계에 의해 규정되고 통제되는 존재로 간주한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아래에서 특별한 존재로서 인간의 삶과 가치를 강조하는 기독교적 입장과 상충된다.

가족체계적인 접근의 핵심적인 전제들 중에는 결정주의적이며 환경적인 기반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영적, 윤리적, 사회적 책임 속에 있다는 사실 속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보웬의 가족치료기법 중에서 자기분화, 탈삼각화, 가계도 작성하기 등의 세 가지 항목을 기독교적 입장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23) 송정아 · 최규련, 『가족치료의 이론과 기법』, 207.

1) 자기분화

보웬은 한 인간이 가족 안에서 두 가지 방향의 삶의 압력 - 가족의 '결속'에 개성이 매몰된 상태와 '개별성'을 위하여 자유를 쟁취하려는 상태 - 속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자율적인 작용능력인 '분화'와 관련되며 자기분화가 잘 되어있을수록 두 방향의 삶의 압력으로부터 균형을 잡고 또한 역으로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개인의 자기분화수준은 높아진다고 한다.

한 인간의 삶의 장을 세상이라는 전체로 확대하여 본다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라는 삶의 장에서 결속과 개별성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자율적인 작용능력인 '영적분화'와 관련되어지며 영적자기분화가 잘 되어 있을수록 두 방향의 삶의 압력으로부터 균형을 잡을 수 있고 또한 역으로 이러한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자기분화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보웬은 적절한 자기분화는 내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며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위해 평생토록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보웬은 적절한 자기분화가 되면 내적으로 자유로워진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적절한 영적자기분화는 그리스도인에게 내적인 자유함을 가져온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자유하다'라는 것은 죄에서 자유하다는 것,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고 영생을 얻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때 참 자유할 수 있으며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세상에서의 많은 갈등들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갖게 하며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자기분화'수준이 높은 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²⁴⁾

2) 탈삼각화

보웬의 가족치료이론의 중심적인 치료목표는 다세대간에 삼각관계를 맺고

24) Henri J. M. Nouwen, *Beyond the Mirror*, 윤중석 역, 『거울너머의 세계』 (서울: 두란노, 1998), 59-61.

있는 사람을 거기에서 해방시켜 탈 삼각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자는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삼각관계와 다른 종류의 삼각관계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치료적 삼각관계, 혹은 탈 삼각화 라고 부른다.²⁵⁾

보웬은 삼각관계의 형성에 있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안정감’을 갖기 위해 서라고 한다. 즉 자신의 정서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 3자를 개입시켜 일시적으로 불안을 감소시키고 그 속에서 안정감을 경험하는 것이다. 분화의 수준이 낮으면 불안이 생겼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흥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불안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낮추려 하면서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삼각관계를 새롭게 바라 볼 때, 앞에서 이야기한 영적자기분화수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낮은 영적자기분화수준은 이 세상이 주는 불안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소명의식을 잃고 다른 무엇인가로부터 안정감을 얻으면서 일시적인 불안을 감소시키려 한다.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러한 올바른 인식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의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삼각관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다.

3) 가계도(Genogram)

보웬은 3세대 이상의 가족에 관한 정보가 도식화되어 있는 가계도를 통해서 가족 성원 각 개인과 가족 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유형이나 사건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보웬은 가계도 작성 시 가족의 정서적 과정은 반복적인 경향이 있으며 미해결된 동일한 정서적 문제가 세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²⁶⁾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조상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식의 외모나 성격, 유전적 특성은 부모 내지 조부모, 그 외대의 조상과

25) 김용태, 『가족치료이론』 (서울: 학지사, 2006), 359.

26) 송정아·최규렌, 『가족치료의 이론과 기법』, 219.

짧기 마련이다. 선대의 영향은 삼, 사대를 넘어 후손에게까지 미치곤 한다. 후손들은 그 같은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유전적 특성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며 사람들은 조상에게서 생리학적 특성 뿐 아니라 영적 특성도 물려받기에 영적 특성 역시 유전적 특성처럼 자손 대대로 영향을 미친다.²⁷⁾

따라서 보웬은 가계도를 정서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지만 본 연구는 신앙적인 입장을 고려하고자 한다. 사람은 영적, 감성적, 사회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요소가 중요하다. 영적인 좋은 영향력은 자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과 세계가 있다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튼튼한 기초를 제공해 준다. 부모는 신앙적인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있음을 확신하고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한다.²⁸⁾

정리해보면 가계도는 간단한 도식화 위에 가족의 중요한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들의 원인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 준다. 목회상담에서 교인들을 가계도를 통하여 상담한다면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보웬의 이론에 의한 신학대학원생들의 가족분석

1) 신학대학원생들의 가계도 및 가정의 역사 작성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결혼과 가족상담> 수업에 참여한 33명의 학생들이 가계도를 작성했다. 신대원생들은 자신의 가계도와 그 가계도를 설명하는 가정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 분량은 A4사이즈, 6-8매 정도였다. 수업에 참여한 신학대학원생들은 1학년 8명(남:5, 여:3), 2학년 11명(남:9, 여:2), 3학년 14명(남: 12, 여:2)으로 총 33명이다.²⁹⁾ 이들은 A4 한 장 크기에

27) J. Otis Ledbetter & Kurt Bruner, *Your Heritage*, 임종원 역, 『하늘 유산』 (서울: 미션 월드라이브러리, 2000), 10-11.

28) Ledbetter & Bruner, *Your Heritage*, 43-45.

29) 신학대학원생들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에 목회자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교단(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입학시험을 거친 대학원과정의 학생들로서 신대원생으로 표기한다.

는 자신의 가족가계도를 3대에 걸쳐 그렸고 그런 다음에 A4 5-7 매 정도의 분량으로 자신의 자서전이 포함된 가족 3대에 걸친 가정의 역사를 기록했다.

2) 신학대학원생들의 가족배경분석³⁰⁾

(1) 조부모세대·외조부모세대

사례1: 나의 증조모는 뿌리 깊은 유교 가문에 처음으로 신앙을 전해주었다. 우리 가문이 기독교신앙을 받아들인 일화가 있다. 조부의 남동생 한 명은 십대 초반 어린 나이에 병사했다. 그런데 그 분이 우리 집안에서 최초로 주일학교에 출석했다. 이 조부의 동생은 죽은 후에 어머니의 꿈에 나타나 “나는 지금 좋은 곳에 있으니 어머니도 예수믿고 나중에 만나자”고 했다. 꿈에서 깨어난 증조모는 바로 교회에 출석하였고 대가족을 통솔하던 안방마님은 “우리 집은 앞으로 모두 예수를 믿는다”고 선포했다.

사례1은 가정에 기독교신앙이 전래된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 가정은 증조부모 세대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신대원생들의 조부세대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낮은 시대이지만 33가정 중에 10가정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조부모시대에 부모모두가 신앙생활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6가정) 조모나 외조모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 경우도 있었다(4가정). 이것은 봉건적인 유산이 강한 세대에 기독교신앙의 뿌리를 내렸던 여성들의 큰 영향력을 보여준다. 이들은 주로 대가족제도아래 살았고 여러 형제들이 있었고 결혼 후에는 여러 명의 자녀들을 두었다.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가정의 규범은 효(孝)사상이었다.

(2) 부모세대

사례2: 아버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가셨고 현재까지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버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 어

30) 기독교신앙생활의 기준은 조부모의 신앙기준은 부모가 태어날 때를 기준으로 조부모가 신앙생활을 한 경우이고 부모신앙은 신대원생이 태어날 때에 부모가 신앙생활을 한 경우를 기준으로 결정했다.

머니는 그러한 아버지를 안타까워하시며 아버지의 성격 탓으로 돌리곤 했다. 하지만 가계도를 작성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아버지를 볼 수 있었다. 인생의 어두웠던 시절에 아버지에게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찌면 사치였을 것이다. 두 가지 요소, 즉 아버지 자신의 성실성과 큰 아버지의 도움으로 인생의 고비를 넘기셨고 여기서 하나님의 도움은 배제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서 아버지는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는 아버지의 성실함으로 해결하시려고 노력했다.

부모세대는 1930-1960년까지 출생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상당수가 한국 전쟁을 경험했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다. 이들은 여러 형제들(4-5명 정도) 가운데 출생했지만 결혼 후에는 대부분이 2-3명 정도의 자녀를 두었고 종종 1명의 자녀를 둔 경우도 있다. 33가정에서 26가정이 신앙생활을 했고 10가정은 목회자가정이다. 이렇게 보면 목회자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목회자가 되려는 동기부여를 받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사례2의 신대원생이 부모인 아버지의 신앙의 연약함을 염려하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부모세대는 전반적으로 영적인 관심이 있지만 신대원생들인 이들의 자녀세대보다는 영적인 관심이 부족하다. 조부모세대에는 33가정 중에서 1가정이 이혼을 했는데 부모세대에는 33가정 중에서 5가정이 이혼한 사실은 이들이 이혼의 영향력이 증가되는 세대에서 성장한 것을 보여준다.

(3) 자녀세대

사례3: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내가 나의 아버지가 가는 길로 가지 않고 할머니 세대에 끊어졌던 영적인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시 잇기를 원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러한 것의 완전함을 위해 나를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집안에 흐르는 흐름을 단번에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수로를 트는 자로 부르셨다. 가정의 다세대전수과정은 가끔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내려온다. 마치 인과관계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 안에 분명 그리스도가 변수가 될 것이라 난 확신한다.

자녀세대는 신대원생들 본인으로 26명은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고 7명은 당대에 예수를 믿었다. 이들 중에 10명은 목회자의 가정에서 성장했다. 이들은 부모세대와는 달리 형제들이 2-3명이고 대학교육을 받았다. 어떤 신대원생은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고 일부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결단하고 신학교에 들어왔다. 이들 중에는 탈북자 출신(1명)도 있고 중국에서 온 유학생(1명)과 몽고에서 온 유학생(1명)도 있다. 사례3의 학생은 신학대학원에 오기까지 신앙적 결단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례 3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신대원생들은 그들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까지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학생도 이것을 내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했다. 반면에 목회자 길로 가는 것을 집안에서 반대하는 경우의 학생은 소명적 확신이 필요했고 가정의 반대를 극복해야했다.

2) 보웬의 이론으로 본 신학대학원생들의 가족의 정서체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보웬의 8가지 가족치료 이론 중에서 자기분화의 측면과 삼각관계의 측면에서 신대원생들이 작성한 가계도와 가정의 역사에 근거하여 그들의 가정을 분석했다.

(1) 자기분화의 측면

보웬에 의하면 참자아를 가진 사람은 분명하게 정의된 신념과 견해, 그리고 확신과 이성적 추론과 대안을 고려하면서 발전시킨 생활원칙을 기초로 생활한다. 반면 거짓자아는 이성적인 원칙을 기초로 하기보다는 감정적 압박을 기초로 선택한다.³¹⁾

사례4: 아버지는 어머니, 누나, 그리고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셨다. 아버지는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반면, 어머니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이

31) Becar & Becvar, *Family Therapy*, 156.

었다. 돈독한 신앙을 가진 부모님은 화를 내는 일이 없으셨고 서로 간에 언성이 높아지면 먼저 사과하셨고 우리 두 자녀에게도 마음에 불편을 줘서 미안하다고 하셨다. 남성으로서, 가장으로서 가진 권위와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아버지의 경제적 도움을 받으며 지내는 사촌형제들의 자녀는 더 비싼 옷을 입고 아주 부티가 낫지만 그에 비해 우리는 촌스러워 보였다. 이 때 아버지는 마음의 생각을 굳히고 할머니의 생활비를 드리는 것 외에 모든 형제들과의 지원과 연락을 단절했다.

사례4의 가정은 부모가 서로를 배려하며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자녀들도 평범한 옷에 만족하는 외형보다는 내면에 치중하는 자기분화가 잘 된 가정의 모습이다. 이에 비해서 이 가정의 사촌 형제의 가정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녀들을 지나치게 좋은 옷으로 치장하는 내면보다는 외형에 충실한 자기분화가 잘 되지 않은 가정이다. 사례4의 부부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이들의 자녀들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나 사촌들의 가정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 사례4 가정의 높은 수준의 자기분화와 사촌가정의 상대적으로 낮은 자기분화는 기독교신앙의 유무(有無)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건전한 기독교신앙은 자기분화가 잘 이루어진 참자아의 사람이 되게 한다. 사례4의 가정은 정의된 신념에 따라 도움을 받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절약하지 않는 사촌의 가정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중지했지만 꼭 해야만 하는 할머니의 생활비는 보내드렸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때 참 자유할 수 있으며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요8:31,32). 이러한 인식은 세상에서의 많은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갖게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분화 수준을 높여준다.³²⁾ 신대원생들의 가계도분석을 보면 신앙으로 인해 자기분화의 수준이 높아진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한다. 그러나 모든 기독교신앙이 반드시 자기분화의 수준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32) Nouwen, *Beyond the Mirror*, 59-61.

사례5: 가정 형편을 생각하지 못한 채, 고3이 되던 3월쯤 나는 성악을 공부해야겠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우리 집안의 분위기는 '자기 할 일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 이었는데 학교교사와는 달리 어머니는 나의 장래를 걱정하시면서도 나의 선택을 존중했다. 여자친구와 나는 7년간 교제했는데 나는 그녀의 솔직함이 좋았고 그녀는 나의 착한 성격이 좋았다고 했다. 나는 가난하고 데이트 할 때 좋은 것도 사주지 못했지만 그녀는 내가 원하는 신학의 길을 가도록 격려 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책도 사 주었다.

사례6: 우리 집안은 신앙의 3세대인데 2세대의 친가와 외가의 모든 형제가 목회자이고 자매는 사모이다. 그래서 신앙 3세대인 나의 세대에서 외가에서는 작은 외삼촌의 아들이 친가에서는 내가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 아버지가 교회의 담임목사님이셔서 어린 시절에 '나' 이기보다는 목사의 아들로 인정될 때가 많았다. 그래서 무엇을 잘했을 때는 당연했고 잘못했을 때는 크게 꾸중을 들었다.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했다. 그리고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중직자의 자녀들보다 월등해야 했고 그 결과로 나는 타인에 비해서 승부욕이 강하다.

보웬은 가족 안에서 두 가지 방향의 삶의 압력인 가족의 결속을 위해 개성이 매몰된 연합성과 개인의 자유를 쟁취하려는 개별성 사이에 균형을 잘 잡는 사람은 자기분화가 잘 되었다고 말했다.³³⁾ 이 면에서 사례5와 사례6은 서로 대비된다.

사례5의 가정은 자기분화가 잘 이루어졌다. 이 가정의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들의 학교선택을 아들의 관심과 적성에 따른 감정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을 했다. 학교교사는 대학합격결과로 학교평가를 높이고자 이 학생에게 음악이 아닌 다른 전공을 권했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다. 이 신대원생과 그의 어머니는 자기분화의 수준이 높았고 교제하는

33) 송정아 · 최규련,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198.

여성의 분화수준도 높았다. 이 가정은 가정의 결속(연합성) 때문에 개인의 개별성을 희생시키는 많은 순기능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반해 사례6는 다른 형태를 보여준다. 1세대와 2세대에 목회자가 나왔기에 3세대에도 당연히 목회자가 나와야 한다는 집안의 분위기는 자녀들에게 가정을 위한 결속(연합성)을 강조해서 가족원의 개별성이 희생당해서 낮은 수준의 자기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목사의 아들이기에 교회의 중직자들의 아들보다 탁월해야 한다는 강요는 사고적인 반응이 아닌 감정적인 반응으로 낮은 분화수준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기독교신앙이 반드시 자기분화의 수준을 높여준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폐쇄적이고 교조적인 신앙은 가정의 연합성을 강조한 반면에 가정의 개별성의 약화를 가져와 자기분화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

가계도의 분석에 따른 세대별 자기분화의 수준의 비교는 조부모세대(부모세대<자녀세대로 나타나고 세대별 기독교신앙가정수의 비교는 조부모세대(10가정)<부모세대(26가정)<자녀세대(33가정)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교육의 증가에 따른 인지능력의 향상의 결과의 측면도 있지만 기독교 신앙의 결과이다. 사례6처럼 편파적이고 폐쇄적인 소수의 기독교가정을 제외하고 다수의 가정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져서 자기분화가 잘 이루어졌고 이러한 추세는 기독교가정의 수가 많아진 자녀세대에는 자기분화의 수준이 더 높아졌다.

(2) 삼각관계의 측면

보웬은 삼각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삼각관계의 형성에 있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한다. 즉 자신의 정서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 3자를 개입시켜 일시적으로 불안을 감소시키고 그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다.

분화의 수준이 낮으면 불안이 생겼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흥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불안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낮추면서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된다.³⁴⁾ 삼각관계는 일반가정처럼 신대원생들의 가족 내에서 종종 관찰되는 현

상이다. 먼저 두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례7: 첫째 이야기 -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많이 애착되어 있었다. 할아버지가 재혼하고 첫 번째 낳은 아들이어서 그런지 장손이어서 그런지 할머니는 아버지를 많이 품으면서 키우셨다. 아버지가 학교 아이들을 구타해도 할머니는 할아버지 몰래 치료비를 물려주기도 하셨고, 아버지의 외도문제가 표출되어도 할머니는 조용히 어머니를 나무라곤 하셨다. 할머니에게 아버지의 이혼은 어머니에 대한 강한 분노로 이어졌다.

둘째이야기 - 부모님의 이런 문제를 지켜보던 나에게도 교제에 있어서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다. 대학교 2학년 때 교제하던 자매는 나와는 너무 다르게 기독교적인 집안 분위기 속에서 자랐고 또 아버지는 탈권위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주었다. 그러나 그 자매와 헤어진 후 나는 신앙적인 방향을 많이 했다. 부모님과 원만치 않은 관계가 되어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준 하나님도 나에게겐 쉽게 용서할 수 없는 분이었다. 마치 나의 부모님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 다시 나를 건져준 분은 하나님이었다.

사례7에서 신대원생의 할머니는 할머니-아들-며느리의 삼각관계를 가졌다.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철저히 용납되어서 자기분화가 낮은 상태에 있었다. 할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밀착이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행복을 줄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할머니는 아들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책망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며느리에게 돌렸으며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해서 삼각관계를 벗어나지를 못했다. 이 할머니는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를 다녔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 할머니가 아버지 대신 교회를 선택했다면 탈삼각화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신대원생도 신대원생-부모-애인 의 삼각관계를 가졌다. 이 학생은 망가진 가정에 대한 아픔 때문에 애인에게 과도한 집착을 가졌고 애인과의 교제는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34) 김용태, 『가족치료이론』, 356.

그 애인은 이 학생과 다투다가 떠나버렸다. 그런데 이 학생은 이러한 아픔과 원망 속에서 부모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했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 학생의 탈삼각화는 애인대신에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셨던 것이다.

사례8: 제 동생의 경우 '네가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라는 말이나 생각은 동생에게 성장과정에 커다란 아픔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부모님, 특히 어머니는 동생과 저를 놓고 봤을 때, 저에게는 집착이라고 생각이 될 만큼 애착관계가 심했고 요구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반면 동생에게 요구하는 것, 기대하는 수준도 낮았고 온전히 건강하게 잘 크는 것 이상으로는 별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행동 또한 동생에게는 성장과정에 소외감을 줬을 것입니다.

사례8의 부모님의 기대는 학업성취나 장래 등에 있어 온통 장남에 쏠려있다. 이 신대원생의 동생은 둘째가 유산이 되어 태어난 존재였다. 그렇기에 장남에게만 융합 되어 있는 부모의 모습은 동생에게는 아픔이고 고통이었다. 부모는 자기들이 이루지 못한 학문에 대한 기대를 장남인 신대원생에게 두면서 그의 성장과정과 기대충족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그 결과로 신대원생의 동생은 집안에 있기보다는 바깥으로 돌게 되었고 꿈을 낮게 설정하게 되었다. 부모-신대원생-동생의 삼각관계에서 동생은 희생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신앙적인 인격성숙이 갖춰진 신대원생은 이러한 삼각관계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동생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표현하면서 탈삼각화를 시도한다. 신대원생의 이러한 추구는 바람직하다.

사례7과 사례8의 경우처럼 신대원생의 가정에서 발견하는 삼각화에서 벗어나는 것은 균형잡힌 인격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자기분화의 측면에서 신앙이 자기분화의 수준을 높였던 것처럼 탈삼각화에서도 당사자의 신앙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대원생의 가계도분석은 위에서 제시한 사례7과 사례8외에도 삼각관계로 인한 가족관계의 불행을 융합의 대상이 되는 인물을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탈삼각화에 성공했던 사례들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예는 부모가 이혼을 해서 아버지-이들-어머니의 불

행한 삼각관계에서 고통을 겪었던 신대원생은 아버지와 어머니 어느 누구에도 융합하지 않고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본인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부모님 각자가 신앙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계속해서 권면했다. 그 결과로 어머니와 아버지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서 회복되었다.

33명 전체 신대원생들의 탈삼각화의 비율은 그들의 가정의 기원을 분석해보면 조부세대(부모세대<자녀세대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신앙심증가의 결과로 사료된다.

5. 가계도 분석을 통한 신학대학원생 상담

본 연구자는 신학대학원생 상담을 세 가지 방향에서 시도했다. 첫째, 신대원생들이 가계도를 작성하는 과정을 자가상담의 실천의 과정으로 삼는다. 신대원생은 가계도작성과정 속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자신의 원가족을 이해하고 미분화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면서 자기인식을 확장시킨다. 둘째, 자신의 가계도분석을 소그룹에서 나눔으로 자신의 가정의 가치와 독특성을 발견하며 또한 일반적인 다른 가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확장시킨다. 셋째, 상담자는 신대원생들의 가계도 분석을 근거로 실제적인 개인상담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 첫째와 둘째는 실제로 실시했던 결과를 제시하고 셋째는 목회상담자(교수)가 가계도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감당해야 하는 개인상담의 주요 방법론만을 제시할 것이다.

1) 가계도 작성을 통한 자가상담(Self-counseling)

본 연구자는 신대원생들에게 가계도를 설명해 준 후 작성법을 알려주었다. 가계도 작성이 끝난 다음, 자신의 가족 내에서 내려왔던 정서적인 고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게 하고 그 내용들에 대해 가정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가족의 역사를 기록하게 했다. 가계도를 작성하고 자신의 가정사를 글로 기록하면서 신대원생들은 스스로 개인과 가정에 얽힌 많은 문제점에 대해 해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계도작성의 과정이 자가상담의 과정이

되었다.³⁵⁾ 가계도 작성에 참여했던 진원이 가계도작성을 통하여 유익을 얻었음을 보고했다. 참여한 신대원생들의 보고서 중에 축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1: 지금까지는 아내가 내 모습을 '비겁함'으로 해석했지만 가계도를 그리는 과정을 통해 치유될 수 있는 '상처'요 '아픔'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 부부는 달려 뒷면에 가계도를 함께 그리고 밤이 깊도록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참여자2: 자서전은 개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껴냄으로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족들 이야기, 내 이야기, 비전이야기, 결혼이야기 등을 전부다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깐 한결 마음이 편안해진다.

참여자3: 가계도를 보며 내 안에 형성된 가치관과 내재된 능력들을 살펴보면 저절로 생긴 것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지만 어느 이상의 굴레를 넘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참여자4: 가계도 작성을 하면서 집안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다. 우리 집안에 흐르는 나쁜 흐름도 알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집안과 식구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집안에서 끊어야 할 가정의 역사인 나쁜 흐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35) 자가상담은 스스로가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상담과정인데 특히 기독교 자가상담자는 자가상담의 과정에서 성령님의 주도적인 사역가운데 하나님의 공회함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다. 김영근, “글쓰기교백을 활용한 목회자의 자가상담연구”, 장로회신학대학, 「장신논단」 제38집(2010): 262-285.

위의 사례에서 제시된 예를 보면 참여자1은 가계도작성을 통해서 자기인식과 과거의 상처의 치유와 영성발달에 도움이 되었다고 제시했다. 참여자2는 과거를 돌아봄으로 현재의 자기인식을 가져왔고 과거의 악한 영향력을 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참여자3은 현재의 자신의 모습은 과거의 가정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것은 자신을 탈피하지 못하게 되는 족쇄도 되지만 과감하게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참여자4는 개인적으로 가족들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가정의 나쁜 흐름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위에서 사례를 제시한 4명 외에 나머지 29명도 각자가 가정의 기원을 작성하면서 경험했던 유익한 사례들을 제시했는데 그들의 깨달음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을 하게 되었으며 특히 자신의 부정적인 면도 객관화시키면서 수용하게 되었고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둘째, 현재 자신의 미분화의 문제가 자신의 이전세대부터 내려왔음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지금 해결되지 않는 미분화는 자녀 세대에도 전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가정의 역사를 글로 기록할 때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가정의 역사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공훈과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자가상담의 효과가 일어났다.

넷째, 가계도의 작성은 가족들에 대한 이해를 객관적으로 하게 되었고 그들을 수용하게 되었고 그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다섯째, 자신의 가정의 독특성과 고유성을 발견하면서 자기기문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가정의 가치도 인정하며 수용하게 되었다.

2) 가계도작성의 경험을 나누는 집단상담

가계도를 작성한 후에 33명을 5-6명씩 6조로 나누어 매회 1시간씩 2회에

걸친 소그룹모임에서 자신의 가족이야기를 나누도록 했고 그런 다음에 전체 모임에서 5-10분 정도씩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하도록 했다. 신대원생들은 소그룹모임을 통해서 자신이 속한 가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수용하게 되었고 다른 가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그런 다음에 전체 모임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가계도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가정을 소개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가족을 객관화시키는데 도움을 받았다.

집단상담은 개인상담보다 여러 문제를 폭넓게 취급할 수 있고 참가자들이 상호 감정과 관심사를 터놓고 나눌 수 있으며 외적인 비난의 두려움 없이 새로운 행동을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그룹모임은 참여자들이 그 과정자체에서 즉시적으로 구성원들 간에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수용함으로써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³⁶⁾

신대원생들은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소그룹모임에서 자신의 가계도를 발표함으로써 더 이상 자신의 가족에 대한 수치감이나 열등감을 갖지 않고 자신의 가문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되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교회내의 소그룹에서 지도자나 혹은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소그룹모임에서 자신들의 가족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

3) 가계도를 활용한 개인상담

본 연구는 신대원생들이 제출한 가계도를 분석한 결과로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영역에서 신대원생들을 위한 개인상담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관심기울이기다. 신학대학원생은 교회에서 학생의 신분이지만 교육 전도사로서 지도자역할을 한다. 그들은 여전히 완성된 인격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신앙인격의 소유자자로 그들에게는 아픔도, 눈물도, 외로움도, 사

36) Carl R. Rogers, *Carl Rogers on Encounter Groups* (New York: Harper & Row Press, 1970), 45-50.

역의 부담감도 있다. 목회상담자는 신대원생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과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소외된 자 배려하기이다. 신대원생들 중에는 당대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외국에서 온 유학생도 탈북자도 있다. 이들의 눈에 비쳐진 한국 교회와 신학교는 폐쇄된 공간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은 보통의 신대원생들에 비해서 소외될 수 있다. 이들을 위해서 문화적 상담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을 위한 신중한 목회상담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결혼관계상담하기이다. 33명 중에 결혼한 사람이 14명이고 미혼이 19명이다. 가계도작성을 통하여 신학생들은 결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결혼한 학생들은 그들의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상담이 필요하며 미혼인 학생들을 위해서는 올바른 결혼에 관하여 상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결혼관계 상담은 교육적 상담을 통해서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넷째, 진로상담하기이다. 신대원생들은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며 동시에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사역지 선정을 도와줄 진로상담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도 신대원생들에게 필요하지만 이들의 자질이나 특기, 관심분야 등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III. 닫는 글

목회상담(기독교상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의 위임을 받은 교역자가 위기 가운데 고통당하는 내담자를 교회의 지원과 자원을 가지고 일반상담의 이론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돕는 일을 한다.³⁷⁾ 이런 의미에서 보웬의 가족치료이론은 일반상담의 이론과 방법으로 교회가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상담 방법론이다. 그러나 가족치료이론이 가족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함에 있어

37) 오성춘, 『목회상담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23.

서 교회의 입장과 일치하지만 한 인간을 고유한 신앙인격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보다는 가족의 체계내에서 규정되고 통제되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이 이론의 기독교상담에서 활용은 계속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계도작성에 참여했던 신대원생들은 미래의 교회지도자들이다. 가계도를 활용한 목회상담이 신대원생들에게 보다 성숙한 수준의 인격적·영적 자기분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목회상담의 경험이 그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잘 활용되기를 바라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보웬이 제시했던 것처럼 자기분화의 과정은 일생동안 계속되어야만 한다. 신앙공동체도 넓은 의미의 가족이다. 확대된 모든 가족관계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서 건강한 치료적 삼각관계를 맺는 것은 신대원생들 포함한 모든 사역자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 김영근. “글쓰기고백을 활용한 목회자의 자가상담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장신논단」 제38집(2010): 262-285.
- 김용태. 『가족치료 이론』. 서울: 학지사, 2006.
- 김유숙.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1998.
- 김정택·심혜숙. “Murray Bowen의 정신역동적 가족치료 모델”. 서강대학교생활상담연구소. 『인간이해』 (1992, 3): 37-423.
- 김혜숙.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서울: 학지사, 2003.
- 문희경. “체계론적 가족치료 이론의 목회적 적용가능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학원, 1996.
- 박미라. “보웬이론을 통해 본 아홉가족의 분석”.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 2008.
- 송성자. 『가족관계와 가족치료』. 서울: 홍익재, 1991.
- 송정아·최규련.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서울: 도서출판 하우, 1999.
- 오성춘. 『목회상담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이관직. 『목회자가 본 성경인물과 심리분석』. 서울: 한국목회상담연구소, 1999.
- Becvar, D. S. & Becvar, R. J. *Family Therapy: A Systemic Integration*. 정해정·이형실 역. 『가족치료: 체계론적 통합』. 서울: 도서출판 하우, 2006.
- Bowen, M.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orthvale, NJ.: Jason Aronson Inc., 1992.
- Goldenberg, Irene & Goldenberg, Herbert. *Family Therapy*. 김득성 외 역. 『가족치료』.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3.
- Kerr, M. E. & Bowen, Murray. *Family Evaluation*. 남순현·전영주·황영훈 역. 『보웬의 가족치료이론』. 서울: 학지사, 2005.
- Margaret, Hall C. *The Bowen Family Theory and Its Uses*. Northvale, NJ.: Jason Aronson Inc., 1991.
- Nichols, Michael P. & Schwartz, Richard C. *Family Therapy: Concepts and Methods*. 김영애 외 역. 『가족치료 개념과 방법』.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5.
- Nouwen, Henri J. M. *Beyond the Mirror*. 종석 역. 『거울너머의 세계』. 서울: 두란

노, 1998.

Rogers, Carl R. *Carl Rogers on Encounter Groups*. New York: Harper & Row Press, 1970.

Satir, V. *Conjoint Family Therapy: A Guide to Therapy Technique*. 김만두 역. 『가족치료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사회복지연구소, 1977.

Wicks, Robert J., Parsons, Richard D. & Capps, Donald. *Clinical Handbook of Pastoral Counseling*. Vol. 1. New York: Paulist Press, 1993.

【 Abstract 】

Christian Counseling for M. Div. Students
throughout Diagnosing Bowen's Family Systems Therapy

Young-Keun Kim

Presbyterian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This paper explained Murray Bowen's family therapy and addressed his theory with a Christian view. Family therapy has many contributing authors, but one that is most notable is Murray Bowen. Bowen presented the concepts of self-differentiation, triangulation, fusion, and emotional cutoff. An often-used technique of Bowenian therapy is genograms, which is also used in a less specific way in Structural Therapy. This family mapping provides not only a diagram of family bloodlines, but also includes symbols to indicate present and past relationships between members. Thirty three M. Div. students made their own genograms. This paper studied the M. Div. students' historical and religious family background and diagnosed their families on both sides of self-differentiation and triangulation with their genograms. In addition, this paper had a pastoral counseling for the M. Div. students with their genograms. Its result was as follows. Firstly, the students obtained the positive effects of self-counseling on the process of their making and addressing their genograms. Secondly, the students obtained the positive effects of group-counseling through their confessing in a small group. This paper suggested several counseling contents for each M. Div. students.

Key words: family systems therapy, self-differentiation, triangulation, genogram, M. Div. student